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노동여건, 언론사내 조직위상의 변화 :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비교 분석

정승호*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박선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인터넷 취재가 기자들의 취재활동, 노동여건 및 언론사 내 조직 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취재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도입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에게 취재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출입처중심 취재방식과 취재원과의 관계변화는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취재영역의 파괴는 전국지 지역기자에게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재로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나 특히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우 인력부족과 열악한 취재환경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취재가 이용되고 있었다. 조직위상과 관련하여 전국지의 경우 인터넷 관련부서가 늘고 내근부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지역신문의 경우 취재부서까지 통폐합되고 특히 편집부, 조사부, 사진부 등의 위상이 큰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위상변화는 다시 기자들의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취재는 신문사 조직과 취재환경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재환경이 열악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ey Words : 인터넷 취재,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노동 강화, 언론조직변화

* parpar72@naver.com

** parksh@chosun.ac.kr

1. 문제의 제기

인터넷의 영향은 정보교환 및 전달의 범위와 속도, 여론 형성 및 의사결정 참여 등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또는 온라인 저널리즘은 뉴스스토리의 구성, 뉴스 전달 등 뉴스 생산방식과, 뉴스 구독, 소비방식, 수용자와의 관계 등 뉴스 이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황용석, 2005; 권상희, 2004; 윤영철, 2001; Hall, 2001; Schultz, 2000; Massey, Brian L. & Levy, 1999; Pavlik, 1997). 특히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정보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뉴스 이용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뉴스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박선희, 2001; 김성태·이영환, 2006). 덕분에 뉴스생산 및 소비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일방적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 대인커뮤니케이션과 매개커뮤니케이션으로, 그리고 기존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가능한 하이퍼미디어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재현, 2000, 45-48쪽 참조).

이와 같은 변화가 저널리즘 전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언론사의 뉴스 취재 환경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은 마감시간과 특종, 출입처 등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상징으로 통해 왔던 독특한 시간과 공간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임영호, 1998).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기자들의 중요한 취재영역이 되었는데,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취재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취재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취재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졌음을 뜻한다(윤영철, 2001).

인터넷이 전통 저널리즘에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뉴스 생산 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언론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을 취재 활동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처해 있는 취재 환경과 조직 구조가 달라 그 영향력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언론사의 취재 환경이나 조직구조는 인터넷 취재활동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¹⁾의 취재환경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면에서 지역신문은 심각한 경영

1) 지역신문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의미하며 신문이 발행되는 한정된 지역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국지(중앙지)와 구별된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난에 직면해있는데, 가구 구독률 조사 결과 지역신문 구독률은 1996년에 15.1%에서 2002년에는 5.8%에 불과했다(한국언론재단, 2002; 한국언론연구원, 1996). 지역신문이 지역관련 뉴스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구독률이나 열독률은 중앙일간지의 1/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2006년 11월 3일자). 이와 같이 지역신문들은 독자로부터 외면당한 채 충분한 지대수익이나 광고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경영 상태로 인력확보와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신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차재영, 2004).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난립하고 새로운 신문사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의정·민형배, 2002).

지역신문 기자의 취재활동을 살펴보면,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광역단체에 1-2명씩 상주하면서 1명당 10-20개의 출입처를 맡고 있는 반면, 지역신문 기자의 경우 이보다 출입처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취재원과의 면대면 접촉 기회가 많고 촘촘한 뉴스그물망을 통해 출입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국지 지역기자가 지역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여건의 측면에서 지역신문 기자들의 근무시간이 월등히 높고, 취재기자들의 주당 기사 작성양도 평균 약 16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렬, 2001).

이처럼 지역신문이 산업구조나 취재활동, 노동여건에서 전국지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취재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이 신문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왔다.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도 취재활동이나 노동여건 등을 단일차원에서 다루어왔을 뿐 이들이 저널리즘 전반에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터넷이 취재환경에 가져온 변화가 신문사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열악한 취재환경에 놓인 지역신문의 경우 그 양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취재 활동, 노동여건, 조직 및 위상의 변화라는 세

신문은 크게 지역신문과 지역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신문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서 발행되고 광역 및 자치단체 주민들을 독자로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구성원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역지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소재지에서 발행되고 독자도 그 지역 주민들이며 소수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취재활동의 변화는 기자들의 노동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언론사내 조직의 위상 변화를 수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동시에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뚜렷하게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면서 조직은 다른 전국지 지역기자²⁾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이 취재 여건이 열악한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향후 지역 언론 활성화에 인터넷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도입에 따른 취재환경의 변화

1) 뉴스 취재 활동의 변화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취재 활동의 변화는 취재관행과 취재도구, 취재내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통 저널리즘의 취재관행인 출입처와 취재원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 작성은 시간과 함께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공간 제약에서 오는 취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뉴스를 공급받기 위해 고안된 취재 가운데 하나가 출입처(beat) 시스템이다(Tuchman, 1978). 인터넷은 전통적인 취재시스템 중 하나인 출입처 개념을 바꿔놓았다. 기자들은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출입처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들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회견내용을 알 수 있고, 동영상상을 통해 회견장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가상 지리공간(virtual geography)에서 물리적인 장소라는 것이 의미를 잃고, 취재에서도 공간적 이동이 별다른 강점을 지니지 못하는 ‘원격 저널리즘(distance journalism)’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2)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상주하며 그 지역의 뉴스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사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주재기자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지역기자로 부르는 전국지가 늘고 있다. 주재기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왔으며 일본식 잔재가 남아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역기자로 바꿔 부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Cochran, 1997). 이 때문에 정보원과 취재원의 관계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언론인의 취재활동은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뉴스 보도 형식도 대부분 정보원으로 하여금 그 사안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다(이동근, 2004). 인터넷 취재가 활발하기 전에는 취재 과정에서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면대면 접촉을 통해 기사의 단초가 되는 정보를 캐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취재나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의 활용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fact) 자체는 정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메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활용보도(Computer-Assisted Reporting)³⁾ 등과 같은 새로운 취재도구가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메일은 상호작용성을 구현하고 취재공간을 넓힌 도구로서 취재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 기자들은 취재활동을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편지 순으로 이들을 이용하였으며, 일반 독자나 시청자, 취재원, 기사와 관련된 사람, 전문가 등의 순으로 이메일을 받았고 편집국내 부서에 따라 이메일 수신건수와 이메일 송신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3).

또한 온라인 취재는 단순히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취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자료의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서부터 확보된 자료에 대한 2차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기관 등의 공적 정보나 기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데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기사를 취재하

3) CAR란 용어는 미국의 언론인인 테스 치치오코(Tess Chichioco)가 1989년 미국의 언론전문잡지인 에디터 앤 퍼블리셔(Editors & Publisher)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진 와드(Jean Ward)나 캐더린 한센(Katherline Hansen)과 같은 학자들이 신문기자들의 취해보도 경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CAR라고 부르게 되었다. CAR는 저널리즘에서 컴퓨터 사용의 두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검색해 다른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것을 재생하는 것, 즉 온라인 리서치(online research)를 말한다. 둘째, 뉴스기사의 정보로서 원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컴퓨터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즉 데이터베이스 저널리즘(database journalism)을 의미한다(황용석·권혜진, 2002 참조).

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던 수준에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됐던 컴퓨터 활용보도(CAR)이다. CAR를 이용해 기자들이 취재 아이템 색출, 기사의 배경상황 이해, 언론사 내부자료 검색, 타 매체 검색, 전문가 취재원 발굴, 취재대상 검색 등에서 다양한 취재능력을 갖게 되었다(Garrison, 1997; Miller, 1998). 인터넷이 온라인 영역의 대표주자로 성장하면서 CAR는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한 취재의 개념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취재 전 정보 파악은 물론 기사 소재 발굴과 공중 여론 탐색 등 취재 내용도 바뀌었다. 기자들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전문자료, 관련 뉴스 검색을 통해 기사소재를 발굴할 수 있으며, 특정 아이템을 취재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그와 관련된 사전 정보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뉴스를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건발생의 원인과 배경, 경과, 전문가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견게시판이나 토론방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된 공중의 여론을 탐색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의견을 기사화하거나 기사내용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에 인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출입처 제도의 약화와 온라인 취재도구의 활용, 특정영역을 벗어난 온라인 공간상의 취재활동은 공간에 기반을 두고 취재 영역이 구분되던 과거의 취재 관행을 변화시키고 취재범위나 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2) 노동 여건의 변화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동시성과 정보의 대량 송수신 등 이점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기자들은 인터넷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만족도 및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박소라이창현·황용석, 2001). 반면에 기자들의 일거리가 늘어났으며 기사 작성 건수도 증가하였고, 온라인 신문 기자들의 경우 오프라인 신문 기자들보다 기사작성 건수와 업무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5). 기자들의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시시각각 쏟아지는 이메일 보도 자료를 검색하고 이 가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 기사화해야 하고 지역

이나 출입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챙기기 위해 뉴스 사이트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취재의 무시간적 접근성이 마감시간의 연장과 근무시간의 연장 등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김사승, 2003).

온라인 저널리즘이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란 예측은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코취(Koch, 1991)는 인터넷이 언론의 해석 및 탐사 기능을 더 강화시켜 과거보다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뉴스 형식이 인용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쳐 언론의 전문성이나 해석기능이 제한적이었으나 온라인 미디어가 기자들이 독자적인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해석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속성이나 이용습관에 맞게 뉴스 형식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뉴스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기자들의 일거리는 많아질 것이란 코취의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싱거(Singer, 1997, 1998)도 미국 일간지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나 수집자로서보다는 신뢰도 높은 해석자로서 언론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취재로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 취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노동시간과 이후의 노동시간을 비교 분석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업무 종류가 늘었다고 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노동 시간은 과거보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로 작업하는 기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나 하루 일과 등을 살펴보면 노동 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2003년 기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64.4분(11시간 04분), 일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66.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3, 24쪽).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500명 이상 사업장의 2002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4.9시간보다 무려 약 22시간 많은 것이다. 근무시간은 조직 내 부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재 일반을 제외하면 사회부 기자들과 정치부 기자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고, 내근 부서인 편집/독자/조사부 기자와 논설위원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3) 언론사 내 조직 및 위상의 변화

컴퓨터 혁명은 신문제작의 CTS화, 언론계의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산업 진출 등 매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신문은 원고지에 기사를 작성하고 납 활자로 인쇄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컴퓨터 조판 시스템)가 도입되고, 1990년대 초반이후 PC기술의 핵심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급속한 발달과 가격 인하로 PC 대중화시대가 열리면서 신문제작 환경이 급속히 변화였다(허행량, 1999).

이와 같이 컴퓨터 기술이 뉴스제작시스템에 도입되면서 언론사 조직 및 구성원들의 위상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신문사 편집국 조직형태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교열부와 조사 자료실이 없어진 대신 디지털 뉴스팀과 뉴스디자인팀, 편집지원팀 등이 새로 생겨났다. 지역신문도 전국지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CTS가 도입되면서 지역신문의 편집국 조직도 변모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정치부와 경제부가 정경부로, 사진부와 조사부가 사진조사부로 통합되고, 교열부가 없어지는 대신 인터넷 뉴스팀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신문 제작의 CTS화와 인터넷 취재의 일상화로 언론사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위상 변화를 겪은 부서들은 편집부, 교열부, 조사부, 사진부라 할 수 있다.

먼저 편집부를 살펴보면 전국지의 경우 1998년 411명에서 2004년 331명으로 80명이나 줄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신문수가 비슷했던 1990년(28개사, 405명)과 2005년(26개사, 279명)을 비교했을 때 126명으로 줄어드는 등 편집부 인원 감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동시, 2005, 117쪽). 이 같은 인력 감축으로 편집부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다.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의견은 대형 기획보도의 경우 처음부터 편집기자가 참여하는 등 다른 기능 추가로 업무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미디어 경쟁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과장치인 편집기자의 강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 수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편집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감안할 때 편집기능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에 위상이 축소될 것이란 의견은 신문사가 편집 기자를 필요로 하지만 일정 수준을 벗어난 고비용의 편집기자는 꺼리는 경향이 있으

며 최근 일부 신문사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편집 기자를 취재부서에 배속하는 등 기능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전국지의 경우 앞으로 주말판 경쟁 등으로 우수 편집기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신문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력 충원도 요원하여 편집부 위상은 신문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조동시, 2005).

다음으로 교열부 역시 10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전국지는 IMF 전부터 교열부에 대한 축소가 진행돼 1988년 계약직 채용을 시작한 조선일보에 이어 1996년에는 한국일보가, 1997년에는 서울신문이 교열부를 폐지했다. 지역신문은 IMF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는데, 2004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38개사 중 16개사만이 독립된 교열부를 두고 있다. 편집국 기자 총수 중 교열부 기자 점유율은 전국지와 지역신문 모두 1994년의 8%대에서 2004년 2%로 낮아졌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일부 신문사의 경우 교열부가 편집부나 자회사로 재배치돼 통계에서 제외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급감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교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단순 작업의 반복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열부의 축소 내지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조동시, 2005, 119쪽).

셋째,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주도한 조사부는 DB화가 완료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인 신문사 조직에서 조사부는 신문 기사를 비롯한 문서 정보를 정리·보존하고 일선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모든 기자들이 직접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조사부에서 수행했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일선 기자들에게 이관되었고, 그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조동시, 2005). 전국지의 경우 1998년 44개 신문 가운데 64%인 28개사에 조사부가 있었으나 2004년에는 30%인 13개사로 줄었고, 편집국내 부서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거나 인원 감축과 계약직화 또는 자회사 배치가 늘어났다. 향후 조사부의 위상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탐사취재 등 전문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나 시사감각과 어학실력을 갖춘 전문 정보검색사 역할을 하는 조사부 기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조동시, 2005; 황용석·권혜진, 2002; Koch, 1991).

마지막으로, 사진부 역시 인터넷 취재 확산과 신문의 경영 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부침을 거듭한 부서이다.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생생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이점 때문에 사진부는 인턴 기자가 담당하거나 아웃소싱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통신사 사진이나 행정기관 및 기업체의 홍보사진으로 대체되는 등 사진부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한국기자협회보, 2006년 3월 1일자).

3. 연구문제

이 논문은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언론인의 뉴스 생산 방식과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이러한 영향이 취재 영역은 같으면서 조직 형태는 다른 전국지와 지역신문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인터넷 취재로 인한 기자들의 취재활동 변화는 전국지와 지역신문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인터넷 취재가 노동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와 지역신문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3: 인터넷 취재가 신문사 조직 및 구성원의 위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와 지역신문 간에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택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상자들의 자발적 진술을 통해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인지와 행위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부나 전국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세

계일보, 한국일보 등 9개 전국지 지역기자 11명과,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남도일보, 광남일보 등 5개 지역신문 기자 18명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신문의 경우 언론사 내 지위에 따라 인터넷 취재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지위를 고려하여 편집부국장과 부장, 차장, 평기자 등 16명과 지역기자⁴⁾ 2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취재는 부서 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경우 경제부, 사회부, 사회2부(지역뉴스부), 문화부, 체육부, 편집부, 조사부 등 편집국 내 주요 부서를 고루 망라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4-5시간 정도였으며, 기자 지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차장이나 부장이 일반 기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관련 사이트 이용시간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루 평균 1-2시간이었고, 보도자료 수신건수는 전국지 기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기사화 건수는 지역신문 기자의 경우 더 많아 지역신문 기자들이 이메일을 통한 보도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인터뷰 자료를 미리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뒤 답변지를 보내온 기자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기자들의 출입처에서 이루어졌으며 만나지 못한 일부 기자들은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메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인터뷰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었다. 인터뷰 항목은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인터넷 취재 실무서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전국지 지역기자 와 지역신문 기자, 지역신문의 지역기자들의 인터넷 이용 정도와 장단점, 인터넷 취재가 취재활동과 노동여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취재로 인한 지역 언론계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37개 공통 질문안을 만들어 개방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신문의 본사 기자와 지역 기자와의 취재활동 및 노동여건, 조직 내 위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추가 질문안을 따로 만들었다.

4) 지역신문 지역기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상주하며 지역의 뉴스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사를 일컫는다. 전국지의 지역기자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기자로 부르기로 한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분포

면접대상자	부서	경력 (년)	나이 (세)	직위	하루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평균 뉴스사이트 이용시간	하루평균 e메일 보도자료 수신건수 (기사화 건수)		
전국지 지역 기자 (11명)	A	사회부	18	42	차장	3~4	2	40(1~2)	
	B	사회부	15	43	기자	4	2	30(1건 또는 없음)	
	C	사회부	19	46	차장	3	1	40(2~3)	
	D	사회부	13	39	기자	4~5	2	50(2~3)	
	E	사회부	16	45	차장	3	1~2	30(1건 또는 없음)	
	F	사회부	12	38	기자	4	2	40(2)	
	G	사진부	12	39	기자	2~3	1	30(1)	
	H	사회2부	15	42	차장	3	1	30(2)	
	I	전국부	17	44	차장	3	1~2	40(1~2)	
	J	전국부	16	44	차장	3	1	30(3)	
	K	전국부	8	32	기자	4	2	20(1)	
지역 신문 (18명)	본 사	A	편집부	13	41	차장	8	4	10(없음)
		B	사회부	13	41	기자	2~3	1	20(5)
		C	사회부	12	36	기자	2	1	10(2)
		D	사회부	16	43	부장	5~6	4	10(없음)
		E	스포츠레저부	16	41	부장	5	3	10(4)
		F	사진부	15	42	차장	4	2	20(5)
		G	편집부	19	45	부장	6	2	5(없음)
		H	사회부	11	39	차장	4	1~2	20(5)
		I	사회2부	15	41	차장	5	2~3	30(7)
		J	정보조사부	19	48	부국장	6	4	10(없음)
		K	사회부	12	39	기자	3	1	20(5)
		L	체육레저부	11	38	기자	4	2	10(3)
		M	사회부	2	30	기자	3	1~2	20(5)
		N	경제부	4	31	기자	4	2	20(7)
		O	문화부	14	39	차장	3	1~2	30(8)
		P	사회부	7	33	차장	4	2	20(5)
	지 역	Q	사회2부	9	43	차장	5	2	10(3)
R	사회2부	20	58	부장	4	2	8(2)		

5. 연구결과

1) 인터넷 취재와 뉴스 생산 활동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심층 면접 결과 인터넷 취재가 취재시간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재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취재원과의 관계도 과거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인터넷 취재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사내통신망 등 인터넷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의 절반을 뉴스 사이트 검색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 취재나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포털뉴스였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포털뉴스 다음으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검색사이트인 카인즈(KINDS)를,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의 인터넷 이용 방식이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지 않지만 일부 기자들은 최신 정보나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또는 전국적인 이슈가 있을 때 네티즌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넷 취재가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고 사진이나 보도 자료를 손쉽게 받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시군단위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전화로 취재하고 사진을 전송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사진을 받아 본사로 전송하는 게 일상화됐다. 취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미리 인터넷 메일로 받아 읽어보고 메일을 통해 질문을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전국지 H).

인터넷 취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진 탓인지 취재 현장에서 인터넷이 안되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다(전국지 A).

지역신문 기자들도 인터넷을 저비용 고효율의 취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타 기자가 취재했던 기사내용을 검색해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서 심도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사를 취재할 경우에는 인터넷이 많은 도움이 된다. 몇 개월 전 지역 폐 광산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토양 오염을 유발시켜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또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하고 보도해 기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지역신문 I).

뉴스 그룹이나 대화방 등을 통해 여론을 탐지하고 출입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다. 과거에는 출입처 민원실 민원대장을 뒤졌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부분의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된다(지역신문 H)

기존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데 조사부를 거친다든가 스크랩을 참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아이콘을 자체적으로 쉽게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지역신문 G).

기자들의 이 같은 인식은 이메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자료를 구하고, 뉴스그룹,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도 가능하다는 전망(Frost, 2002; Garrison, 1995; Pavlik, 2001)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넷 취재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취재가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쉽지 않고 현장 취재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취재의 보조 수단이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취재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내용 및 의견이 많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년 전 모 기관장 비리와 관련 익명의 이메일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큰 기사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 해보니 과장되고 일부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인터넷은 정보의 신뢰도와 품질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취재의 보조수단으로 봐야 한다(전국지 F).

취재 아이템을 찾고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작성 방향을 정하는 등 인터넷 취재의 장점이 많지만 한계도 있다. 기자는 취재원과 만나 교감을 통해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장 밀착도가 떨어지다 보니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보를 찾고 조합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기사가 게을러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지역신문 O).

데이비스(Davis, 1999)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스의 신뢰도 문제가 오늘날 언론인들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인터넷 활용 취재가 기자들의 취재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비스의 지적처럼 신뢰도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출입처 중심 취재의 약화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은 뉴스의 전달과 소비 방식, 수용자와의 관계, 뉴스 스토리의 구성방식, 그리고 전달속도 등 전반적인 과정을 변화시켜왔다(황용석, 2005). 인터넷 취재로 인한 전통적 취재형태인 출입처 취재방식의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국지 지역기자의 출입처는 2곳에서 많게는 10곳이 넘었다. 한 사람이 많은 출입처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 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법원, 검찰, 대학 등을 출입하는데 주로 전남경찰청 기자실에 하루 8시간 정도 상주한다. 인원이 적은 탓에 기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말뚝

기자'라고 부른다(전국지 H).

전국지 기자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이 같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변화를 꼽으라면 상주 출입처를 제외한 다른 출입처를 거의 가지 않는 '출입처 집중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이메일로 받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전국지 I).

지역신문 기자들의 출입처는 한 사람당 1~6개로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적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의 출입처 방문 횟수가 크게 줄고 가더라도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출입처 취재 방식이 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전국지 지역기자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검색 같은 새로운 취재방식이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기자들의 배타적 취재공간인 출입처 취재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교육청에 머물면서 취재한다. 1주일에 한번 교육판과 대학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출입처에 갈 여력이 없다. 출입처에 가지 않아도 자료를 보내주고 필요하면 전화로 취재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지역신문 B).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고 출입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는 취재가 늘었다. 기자들이 출입처에 자주 나가지 않다보니 기자간담회도 줄었다(지역신문 L).

지역신문 기자들은 출입처 취재 방식의 변화가 인터넷의 영향도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 기자가 맡은 출입처 수가 그 만큼 많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올 11월 초에 편집국 인사가 있었는데 출입처를 맡고 있는 기자가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의 관공서, 기업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정당, 병원 등 출입처가 줄잡아 100개가 넘는데 15명이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지역신문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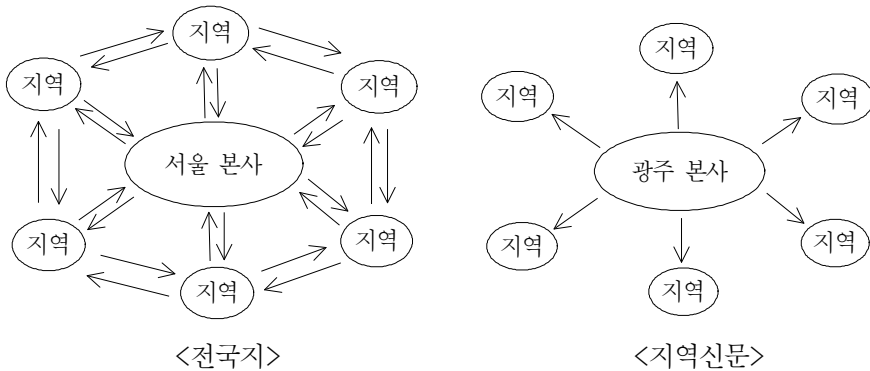
부원들이 맡은 출입처 가운데 형식상 이름만 걸어 놓은 출입처가 있다. 그런 출입처는 기사 발굴보다는 민원이 있을 때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지역신문 D).

지역신문의 열악한 취재 여건이 인원 감축을 초래하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출입처 취재방식이 변했으며 이런 취재 환경은 적은 인원으로도 취재가 가능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유 취재 영역의 붕괴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 대신에 정치, 경제, 교육 등 주제에 따라 취재영역이 재편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재구역도 이전처럼 물리적 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 국한하지 않는다(임영호, 1998). <그림 1>에서 보듯이 인터넷으로 인한 취재 영역의 변화는 전국지와 지역신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전국지의 경우 본사와 지역 간, 지역과 지역 간에 취재가 활발한 반면에, 지역신문의 경우 본사에서 지역을 취재하고 있지만 전국지처럼 취재 영역의 파괴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림 1> 취재영역 파괴 개념도

인터넷을 통한 고유 취재영역의 파괴현상은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로 전국지 지역기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본사(편집국)가 기자들의 출입처나 담당 지역의 뉴스를 먼저 알고 취재지시를 내리거나 인터넷으로 받은 제보를 지역기자에게 넘기기도 한다.

네티즌이나 독자들이 본사 사이트나 데스크 메일을 통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런 제보가 지역기자에게 전달된다(전국지 C).

지역의 사건 사고나 굵직한 행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미리 알고 기사 방향을 정해서 취재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전국지 D).

둘째, 인터넷으로 취재영역이 무너지면서 지역에 담당기자가 있는데도 본사가 직접 기사를 파견해 지역의 이슈나 화제 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신문 기자들도 지역에 기자가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로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나 제보 등을 통해 서울 본사 기자가 지방에 내려와 취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환경이나 교육 관련 취재가 많은 것 같다(전국지 B).

사안이 있을 때 해당 관청이나 기관에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지역별로 인터넷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최신 자료와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지역신문 H).

지역기자의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본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 이게 지역기자의 현실이다(지역신문 Q).

셋째, 담당 지역이나 출입처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자의 출입처 뉴스를 인터넷으로 취재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며, 오프라인 취재영역이 온라인 영역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지만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취재원 연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농림부 수입 쌀 통계 현황이나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한 사례 등은 홈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전국지 H).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졌다. 경제부의 경우 유통관련기사는 예전 같으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위주였지만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블로그 등을 자주 이용하고 자료를 얻는다(지역신문 N).

이 같은 고유 취재영역의 파괴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는 해당분야의 식견 있는 기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취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역신문 지역기자의 경우 자신들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취재원 의존도 및 관계 변화

뉴스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에 의해 말하게 하는 것(Sigal, 1987)이라는 지적처럼 뉴스보도에서 정보원은 매우 중요하다. 심층면접 결과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로 기자들과 취재원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취재가 일상화되면서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고 취재원과의 관계 역시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변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취재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보도자료가 인터넷으로 배포되면서 취재원이나 정보원과의 관계가 다소 삭막해진 게 사실이다. 취재원과의 스킨십도 줄어 고급정보를 캐내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을 정보원으로 관리했는데 요즘에는 꼭 필요한 몇 사람만 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다(전국지 A).

취재원이나 정보원이 줄었지만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을 관리하기 쉽지 않았는데 몇 사람만 집중 관리하면 되고 그들에게 나오는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전국지 B).

인터넷 취재로 인한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취재원과 다소 멀어졌지만 고급정보를 빼내기 위해 여전히 소수의 취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지역신문 기자들은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이 취재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전통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취재원을 통한 사실 확인은 여전히 취재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도나 광주시가 벌이는 사업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 규모나 내용,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걸림돌이 뭐고,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 미묘한 사안을 취재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지역신문 J).

2) 인터넷 취재와 노동 여건의 변화

인터넷 상용화는 매체산업 구조에서부터 종사자들의 작업 양식, 수용자들의 소비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임영호, 1998, 6쪽). 그 가운데 언론종사자들 특히 뉴스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의 노동 여건 변화는 괄목하다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인터넷 취재가 기자들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노동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1) 노동 시간의 차이

기자의 노동시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취재시간이다. 인터넷 취재가 취재시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고, 취재할 때 정보를 신속히 검색하고, 기사 작성 전에 그간 보도된 내용을 보고 기사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등 장점이 많아 과거에 비해 취재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재 장소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이것저것을 묻는 것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그동안 어떤 기사와 사진이 게재됐는지 알 수 있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을 건지는 뜻밖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전국지 G).

관공서나 기관사회단체의 정보공개로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존 기사를 검색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이런 방식의 취재가 일상화되면서 과거보다 취재시간이 크게 줄었다(지역신문 H).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재시간이 줄지는 않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기사 작성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터넷 취재가 시간상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원에게 전화를

결거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취재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전국지 F).

인터넷이 취재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대부분의 기자들의 견해와 달리 정보 확인 때문에 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일부 기자들의 인식은 인터넷이 모든 기자에게 취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노동시간의 차이는 마감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의 경우 대체로 오후 9시 이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시간 이후 취재 업무에서 손을 떼지만 전국지의 경우 마감시간이 밤 12시여서 지역기자들은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본사에서 취재지시가 있으면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터넷 취재는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연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의 노동 패턴은 신문 마감시간이나 인쇄 여건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 강도의 강화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지역신문 기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지만 노동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 지역기자의 일과와 지역신문 기자의 일과를 비교했을 때 전국지 지역기자가 취재와 관련한 노동시간이 4시간 정도 많았다. 그러나 기자들 스스로 노동 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신문 기자의 노동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의 경우 편집국 내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된 부서로 사회부, 지역기자를 담당하는 지역뉴스부, 사진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부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 인터넷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자가 전국지 지역기자처럼 여러 개 출입처를 맡게 되어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지역뉴스부의 경우 취재 및 기사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기자 대신 본사에서 직접 취재해 기사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사진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부 기자들이 취재까지 맡고 있어 과거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할 수 있다.

편집기자지만 취재기자가 부족해 편집과 취재를 병행하고 있다. 취재를 하다가도 편집시간이 되면 서둘러 들어와야 하고 편집이 끝나면 기사거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

에 예전처럼 편집만 할 때 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현재 10개 지방 신문사 가운데 편집부가 있는 신문사는 5곳뿐이고 본지의 경우 편집기자가 부장을 포함해 4명밖에 안 돼 한 명이 하루 4판씩을 맡고 있다(지역신문 A).

10년 전만하더라도 지방신문사마다 사진기자가 7~8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으로 줄었고 IMF 이후 사진기자 채용이 거의 없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지역신문 E).

사진부는 인터넷 취재 때문에 회비가 엇갈린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취재 업무는 예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지고 간편해지는 등 이점이 많지만 이런 편의성이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지역신문 F).

그런데 노동 강도의 강화 요인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지 외에 별도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거나 각종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지역 뉴스에 대해 밤에 데스크가 기사 가치 판단을 요구할 때가 가장 피곤하다”(전국지 C), “뉴스 보도 소스가 지역신문 등으로 다변화됐고 포털에 지역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면서 이를 확인하는 일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전국지 H), “인터넷으로 인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크게 늘면서 이를 분류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졌다”(전국지 J).

반면에 지역신문 기자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진 것이 인터넷을 통한 기본 취재 업무도 있지만 편집국 인력 부족으로 편집, 교열 업무까지 떠안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법원, 검찰청을 취재한 뒤 오후 4시에 회사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기사를 작성하고 후배 기자들의 기사를 손질한다. 오후 6시부터 사회부에서 넘어온 기사의 제목을 뽑고 편집을 한 뒤 조판에 넘어가기 전에 대장을 보면서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오후 8시에 모든 업무가 끝나면 몸은 파김치가 된다. 모든 부서의 부장과 부원들이 취재와 편집, 교열을 보는 1인 3역 체제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지역신문 P).

‘1인 3역’의 노동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취재기자가 출입처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때 일로 보내온 보도 자료를 보고 기사를 쓸 수 있고, 현장 취재를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취재 편의성 때문이다(지역신문 I).

이처럼 전국지 지역기자는 인터넷 자체가 또 하나의 취재 대상으로서 업무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신문 기자는 인력부족이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넷 취재의 편의성 때문에 취재뿐 아니라 편집과 교열까지 맡게 됨으로써 기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처럼 취재기자가 출입처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보내온 보도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현장 취재를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3역'의 노동 여건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향후 기자들의 노동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대체로 노동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 미디어는 컨버전(융합), 다시 말해 원소스 멀티유즈의 환경이 될 것이다. 신문사들은 초를 다투는 경쟁을 벌일 것이고 기자들도 그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전국지 A).

신문사가 인터넷의 발달과 포털의 영향을 받아 온오프 통합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기자들은 신속성과 심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전국지 H).

인터넷 시대에는 기자에게 다기능이 요구되고 이게 가능해지면 적은 인원으로도 신문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곧 특정분야에서 자기만의 전문영역을 구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강박관념을 갖도록 해 결국 정신적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전국지 J).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잘 찾아내는 기자가 일 잘하는 기자, 글 쓰는 기자가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정보검색 능력 차이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노동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지역신문 A).

요컨대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경쟁부문의 확대, 신속성과 심층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감, 전문영역 개척 등 다기능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향후 기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3) 인터넷 취재와 신문사내 조직 및 위상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뉴스매체의 성격과 뉴스개념은 물론 뉴스조직에서 노사관계의 틀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 저널리즘은 뉴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숙련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기존 직무구조도 바꾸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임영호, 1998, 32쪽). 심층면접 결과 인터넷이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뉴스 생산 조직의 틀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편집국 조직의 변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 인터넷 취재로 인한 편집국 조직 내 변화로 인터넷 뉴스 전담 부서 신설, 교열부 및 조사부 등 내근 부서 구조조정을 꾀했으나 지역신문의 경우 취재부서의 통폐합과 내근부서 축소 등 인터넷이 열악한 취재환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뉴스 전담 부서가 편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신설됐다. 온라인 부서가 생기면서 편집국 기자를 온라인 부서로 이동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국지 E).

인터넷 취재가 활발해지면서 내근부서 가운데 부침이 가장 심한 부서는 조사부다. 본사의 경우 조사부 인원이 줄면서 조사연구팀으로 개편됐다. 1993년 23명이던 조사부 인원은 지금 9명에 불과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직 사원이다. 교열부도 어문연구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인원도 1993년 29명이었던 기자가 지금은 16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기자는 팀장을 포함해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사원이다(전국지 G).

내근부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모든 기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이 전산화되면서 조사부, 교열부 역할이 축소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전국지 I).

2006년 11월 편집국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치부와 경제부를 합쳐서 정경부로, 문화부와 체육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로 개편했다. 기자들이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취재 방식 또한 간편해져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편집국 부서가 통폐합됐다(지역신문 A).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취재로 실제 편집부, 조사부, 교열부, 사진부 등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었으며 구성원 역시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등 가장 큰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2) 편집국 구성원의 위상 변화

편집국 구성원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에 따라 상이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 세계 뉴스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부, 경제부, 스포츠레저부 등 외근 부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전국지 C)고 보았고 반면에 “내근부서는 갈수록 기자적 컬러가 퇴색되면서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전국지 B)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내근부서의 위상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인터넷의 특성상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외근 취재부서 위상과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고 내근부서는 업무도 더욱 확대되면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전국지 E), “과거 취재부서의 일을 내근부서의 기자가 맡을 수 있다. 각종 통신 뉴스 등 타 매체 뉴스를 확인하는 기자가 내근으로 전환되는 등 내근부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전국지 H)라고 전망하였다. 지역신문 기자 역시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소통의 장이 된다면 인터넷만으로 취재를 하는 닷컴 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지역신문 B), “내근부서 가운데 인터넷 취재와 기사 게재를 담당하는 뉴미디어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기존에는 취재부서가 정보를 독점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인터넷 활성화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어 때론 내근기자가 취재기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근부서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지역신문 G)라고 예측하였다(지역신문 C). 한편, 인터넷 취재 및 뉴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력 재배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관련 부서의 인원이 대폭 늘고 역할도 커질 것이다. 반면 내근부서는 통합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전국지 C).

취재부서는 온라인 뉴스 독자를 위해 신속한 뉴스를 생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의 출입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는 취재부서 기자들 중 통신 뉴스 등을

확인하는 기자와 새로운 시각의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로 나뉘질 수 있다(전국지 H).

첨단장비 도입과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로 신문제작방식이 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취재부서와 내근부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취재기자가 지면을 편집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이 데스크를 보는 서구식으로 바뀔 것이다(지역신문 G).

취재부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다. 내근부서도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무한히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분화될 수 있다(지역신문 H)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취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취재와 내근의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지역신문 N).

그러나 실제로 조직 내 위상변화를 가장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이었다.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재 외에 광고와 판매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본사 기자들이 지역 뉴스를 취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역기사를 회원 지방사에게 서비스하면서 취재기자로서의 위상은 약화되고 광고와 판매 업무는 전담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본사에서 지역의 뉴스를 취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고, 통신사 뉴스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취재와 광고, 판매를 겸하는 업무 관행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상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지역신문 Q).

본사에서 연합뉴스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지역기자가 쓴 것처럼 크레딧을 달아주고 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이 때문에 지역기자가 사이비 기자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자라는 사명감보다는 사업의 방패막이나 신분 과시용으로 지역기자 제도가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취재를 열심히 하고 기사를 잘 쓰는 몇몇 기자를 제외하고는 사원이나 다름없다(지역신문 R).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앞으로 위상이 더욱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태의 취재시스템이나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심층면접 대상자 모두 편집국 위상 변화에 상이한 전망을 했지만 미래

의 뉴스제작환경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지역신문 기자 특히 지역기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과 노동 여건, 조직 및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지와 지역신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호작용성과 동시성, 정보의 대량 송수신 등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줘 취재의 필수도구가 됐으며 면대면 접촉이나 현장 위주 취재 등 전통 저널리즘의 취재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인터넷 취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취재의 주요 수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기사의 현장 밀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새로운 뉴스제작기술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과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은 기자들의 전통적인 취재형태인 출입처 취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같은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출입처 취재 방식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고 출입처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 출입처를 취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여러 출입처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취재가 가능한 인터넷의 영향과 인력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과거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했던 취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취재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상대적으로 취재영역이 넓은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본사가 지역사건에 대해 취재지시를

내리거나 기사를 직접 파견하기도 하고, 다른 기자의 출입처를 인터넷으로 취재하는 등 취재영역의 파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보편화되면서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소수 취재원을 집중관리하는 반면 지역신문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취재원과 정보원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확인과 심도 있는 기사작성을 위해서는 취재원의 역할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기자들의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노동 시간은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지역신문 기자들에 비해 많았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이 느끼는 노동 강도는 훨씬 컸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일거리가 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은 기본 인터넷 취재 업무에다 인력부족으로 편집, 교열 등 1인2역 또는 1인3역의 업무를 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취재의 편의성이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 인터넷 취재가 향후 기자의 노동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경쟁의 확대, 신속보도와 심층보도의 강화, 다기능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으로 기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언론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위상까지 변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관련 부서가 늘어나고 신문제작의 컴퓨터화, DB 구축 등으로 조사부와 교열부 등 내근부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지역신문 기자들은 내근부서 뿐 아니라 취재부서까지 통폐합되는 등 조직의 변화가 더 크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기사 작성 또한 간편해진 인터넷 취재 환경에 지역신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관련 부서의 인원이 늘고 역할이 커지는 등 조직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취재부서와 내근부서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조직이 전문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본사 기자들의 지역취

재와 통신사의 실시간 지역뉴스 서비스로 조직 내 위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취재는 신문사내 기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들의 위상변화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에게 미친 영향은 취재활동보다는 노동여건이나 조직, 위상에서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신문 기자들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조직 통폐합으로 근무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인터넷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열악한 취재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취재가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그런 현상을 고착화시켜 적은 인원으로도 신문사가 운영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의 도입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에게 취재활동의 효율성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신문사 조직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편집부와 조사부, 사진부 등 언론사 조직 내 취약부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취재는 신문사 조직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저널리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재환경이 열악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신문사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함께 사용하지 못했다. 포커스그룹 토론이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이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를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본사 기자, 지역기자 등 세 부류로 나눠 선정했다. 그러나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광주에서 활동하는 총 18명 가운데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반해 지역신문은 10개 신문사 가운데 5개 신문사로 제한하고 전체 지역신문 기자(지역기자 포함) 300여 명 가운데 18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광주라는 동일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사를 비교했으나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매우 넓은 지역 취재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기자들과 다른 취재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지 다른 부서 기자들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유사한 취재처 규모를 담당하는 전국지 기자들과 지역신문 기자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기자들의 인터넷 취재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인식이 기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사승 (2003). 인터넷이 신문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연구:신문저널리즘의 취재보도활동 차원에서. 『한국언론학보』, 47권 1호. 56-82.
- 김성태·이영환(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
- 김옥렬 (2001). 지역저널리즘의 현실과 전망. 광주전남언론학회 제11차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박선희 (2001). 인터넷이용자의 뉴스생산 참여: <오마이뉴스>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16권 2호, 149~177.
- 박소라·이창현·황용석 (2001). 『한국의 기자노동: 취재기자의 업무 활동 구성과 조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7권, 182~213.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18 ~ 243.
- 이의정·민형배 (2002). 광주전남 언론인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방안-지역 신문 산업 구조와 지방신문기자의 정체성. 『2002년 한국언론학회 쟁점과 토론』, 31~59.
- 이재현 (2000).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영호 (1998).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노동의 성격 변화. 『언론과 사회』, 22호, 6~39.
- 조동시 (2005). 변화하는 뉴스생산 시스템. 『신문과 방송』, 2005년 6월호, 116~120.
- 차재영 (2004). 지방신문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지방신문 특화전략-한국 지방신문 산업의 위기』.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24~32.
- 한국언론연구원 (1996). 『가구 구독률 조사』.
- 한국언론재단 (2002). 『가구 구독률 조사』.
- 한국언론재단 (2003). 『한국의 언론인』.
- 한국언론재단 (2005). 『한국의 언론인』.
- 황용석 (2005). 조직특성에 따른 온라인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조직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권, 129~159.
- 황용석·권혜진 (2002). 『인터넷 활용 취재론:온라인 검색 전략과 기법』. 한국언론재단.
- 허행량 (1999). 『디지털시대의 인사모델-한국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언론재단.
- 인턴기자 채용·아웃소싱설·흔들리는 사진부 (2006. 3 1). 『한국기자협회보』.
- Cochran, W. (1997) Journalism's new geography : How electronic tools alter the culture and practice of newsgathering.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 7(2). [http://www.cios.org/getfileWCochran_V7N297]
- Davis, R.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ost, C. (2002). *Reporting for Journalists*. London: Routledge.
- Garrison, B. (1995). *Computer-assisted Reporting*. Hillsdale, New Jersey: LEA.
- Garrison, B. (1997). Online services, Internet in 1995 newsrooms. *Newspaper Reserch Journaj*. 18(3-4), 79~93.
- Ha, L. & Lincoln, J. (1998). Interactivity Reexamined: A Baseline Analysis of Early Business Web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4): 457~474
- Hall, J. (2001). *Online Journalism-A Critical Primer*, London: Pluto Press.
- Koch, T. (1991). *Journalism for the 21th century: Online information, electronic datdbases, and the news*. New York:Praeger.
- Massey, B. L. & Levy. M. (1999). The use of on-line journalism in asain countr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138~151.
- Miller, L. C. (1998). *Power of Journalism: Computer-Assisted Reporting*. Fort Worth, Texas: Hart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Pavlik, J. (1997). The future of on-line journalism: A Guide to who's doing what. *Columbia Journalism Review*, July/Aug, 1997.
- Pavlik, J. (2001). *journalism and new med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205~221.
- Sigal, L. V. (1987). Who? :Sources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dson, M.(Eds), *Reading the news*. NY : Pantheon Books
- Singer, J. B. (1997). Changes and consistencies: Newspaper journalists contemplate online futur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1-2), 2~18.
- Singer, J. B. (1998). Online Journalists: Foundationss for Research into Their Changing Rol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4(1), <http://www.ascusc.org/jcmc/vol4/issue1/singer.html>
- Tuchman, G. (1978) The news net. *Social Research*, 45(2), 256~266.

최초 투고일 2006. 12. 13

게재 확정일 2007. 2. 10

A Study on Online Journalism and the Change of News Production System : In-depth Interview on National and Local Newspaper Journalists

Seung-Ho Jung

Doctoral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Chonnam University

Sun-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news gathering through the Internet affects news production system, journalist's labor environment, and the organizational position in editorial office. The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national newspaper journalist and local newspaper journalist in Gwangju. Most journalists admit that the Internet is efficient at news gathering activities, but they just accept the Internet as the assistant tool for news gathering. Dependence on beats decreases, and the relationship with news sources get less important specially in case of local newspaper journalists. The Internet extends a physically limited news gathering area to nationwide for national newspaper journalists. The Internet makes the intensity of journalist's labor higher, and sets off against the shortage of journalist in local newspaper. Local newspaper journalists have to take three roles as reporters, editors and revis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net is an essential tool for news gathering, lessens dependence on beats. But the Internet intensifies local newspaper journalist's labor, and maintains the seriously bad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newspapers.

Key words: online journalism, news gathering activities, journalist's labor intensification, change of editorial office